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믿기에
인간의 정함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온 명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잘난 것처럼 하지
않고 함께한 형제를 돌아보며
변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문을 열며

신윤식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나의 가는 길에
행운만 기다리기를
하루의 문을 여는 아침에
이러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삶의 길에서 만나는
괴로운 일, 슬픔의 일로
요동하고 굴절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말씀 한 줄이면 족하니까요.

특별한 것 전혀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마음 다스려 견딜 줄 알며
진리의 길을 걷는 하루라면
그저 그만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글 한 줄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기쁜 날이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8.26

발행호수 제20권 35호

예 수님께서 직접 열 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신 본문의 내용은 마 10장과 막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이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날 열 두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열 두 제자를 부르신 일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열 두 제자로 택하여 세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서나 신자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누구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 달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누가 직분자로 세워지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의미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좋은 직분자를 세우게 해 달라고 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뤄주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6:12-19

열 두 제자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의 기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원인은 교회가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 하셨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눅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의 병 고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한적한 곳으로 파하여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기도에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파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 두 제자를 부르신 일에도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열 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야고보(아패오의 아들), 시몬(셀롯인), 유다(야고보의 아들), 가롯 유다입니다. 열 두 제자의 이름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으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열 두 제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 두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중에 가롯 유다 대신에 맛다이를 뽑아서 열 두 사도를 채우긴 하지만, 그럴 바에야 미리 가롯 유다를 제외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했을 것입니다. 해를 끼칠 사람인 것을 아는데 누가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가 나중에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은, 열 두 제자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 두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는 가롯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제자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열 두 제자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17:6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는 구절을 보면 제자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17장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신 사람’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열 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팔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같은 인물들을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엄선하여 제자로 주셨다면 유대사회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부각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분명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

고 도움도 되지 않고 해를 끼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가롯 유다만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 예수를 부인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은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될 용도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이름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모임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각되는 것은 인간의 실천적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또 다른 세력을 가진 인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실천과 행함이 의로움이 되고 공로로 인정을 받으며 복이 되는 옛 시대는 끝나고 포로 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열 두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열 두 제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시는 것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 그 중심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주신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신자로서의 본분이 나타나는 길로 가기 위한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받아야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받은 신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면 의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겠지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받았다면 은혜보다는 원망이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신자의 본분을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길로 인도 받기를 원하는 신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 오셔서 만난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놀리고 눈멀고 포로 된 자신들을 자유케 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셔서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자로 부름 받은 사람의 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실천이나 행함을 자신의 공로로 앞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신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된 길로 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일 뿐입니다.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 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구원 받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 되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 있어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불교에서의 구원은 곧 해탈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진하여 도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불교는 자신을 구원한 부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는 구원이기에 도를 깨달은 개인의 공로가 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구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구원이든 복이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곧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종교의 길로 가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마음을 두고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신앙심이 있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자신의 의와 공로와 조건들 모두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 증거하며 높이게 됩니다.

81편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아홉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1절)라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의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주일오후설교
시 81:1-16

하나님의 증언

(85강 8.5일 설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내용을 보면 뭔가 평화로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대가 평화롭고 생활이 안정된 삶의 여유에서 이런 기쁨의 노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삶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데 하나님을 믿을 여유가 있느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대하면 마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81편은 아삽의 시이고 아삽이란 인물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누렸던 인물이 아니라 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것은 13,14절의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라는 구절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상황에 있던 것이 아삽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삽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하여 이해했음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1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것도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고 말하는 것도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두고 찬양하는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만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과 현재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찬송할 수 있게 한 힘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에게는 현재의 삶이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브리바 물가에서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마실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삽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이며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믿음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 조건과 무관한 기쁨이며 찬양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11,12절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 임의대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고 내어버려 두심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없는 어둠의 시대로 깊숙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3절)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둠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힘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함으로써 아삽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규정된 죄를 범했다면 대개의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있을 재앙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4절)는 말씀만 봐도 유다가 겪을 재앙이 참으로 심각한 것이며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선지자로부터 그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 문제부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10절)라고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은 그런 큰 재앙을 받아야 할 만큼 죄를 범한 것이 없다며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너무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세상은 죄에 경중을 둡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라 형벌의 양도 달라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엄청난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큰 재앙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이나?’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유다의 죄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긴 우상숭배가 유다가 큰 재앙을 받아야 할 죄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요일설교

렘 16:1-13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43강 8.8일 설교)

것을 죄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방의 신을 끌어들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죄가 무엇이나?’ 라고 묻는 유다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 생각일 뿐 유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며 다원적 종교들의 궁극적인 것의 실재를 주장하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부처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할 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얘기한다면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이나?’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다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자신의 복과 풍요를 위해 찾았습니다. 이들이 이방 신의 형상을 끌어 들여서 섬길 때도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긴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두는 것임을 모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나?’ 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인간을 위한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해 신을 부르고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갖 열심과 돈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두게 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을 경고하고, 그 죄가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한다면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언제 다른 신을 섬겼느냐?’ 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지만 단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본분을 벗어나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즉 자기 몸에 관심을 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는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고 죄인 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은 말씀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저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 받아 마땅한 존재다’는 자기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말씀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러한 기적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저주에서 건짐 받을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던 것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았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장
교 독 : 60(시139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58장
성 경 : 눅 6:12-19
말 씬 : 열 두 제자(2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3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0장
기 도 : 김옥분 집사
찬 송 : 314장
성 경 : 시 84:1-12
말 씬 : 복이 있나이다(8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29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46강)

■ 교회소식 ■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황경영 집사

중국 방문기②

택시의 미터기에는 기본요금인 7위안으로 되어 있었다. 시내버스 요금이 1위안이라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바싼 편인 것 같다. 10분쯤 후 택시는 공항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고 전도사님과 청년들은 벌써 도착하여 이미 버스에 짐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 터미널도 정류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도도 아니고 그냥 넓은 인도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덩치 큰 버스가 자리를 차지한 채 세워져 있는 것이다. 하얼빈 공항으로 갈 사람들이 그 곳으로 와서 버스를 타는 것을 보면 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공항버스가 출발하는 장소인 듯한데, 중국에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솟는다.

전도사님과 청년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출발시간까지는 15분쯤 남은 것 같은데 버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하얼빈에서 올 때 탔던 버스가 우리나라의 우등 고속이라면 지금 탄 버스는 일반 고속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버스 요금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정된 좌석번호는 물론 없다. 뒤쪽에 빈자리가 있어서 앉아 창밖을 보니 전도사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고 계시다가 손을 흔드신다.

8시가 조금 지나자 버스가 출발하고, 잠시 후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선다. 올 때 버스가 되돌아갔던 일이 떠올라서 혹시 이 버스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공항을 향해 달린다. 올 때와 다를 바 없이 차창 밖에는 산이 없는 벌판이 펼쳐지고 삭막함이라고 할 수 있는 쓸렁함의 분위기가 이제 곧 중국을 떠날 내 마음에 희미한 여운으로 남는다. 산이 없는 드넓은 광야를 보면서 공부시간에 등산을 해 본적이 있다는 질문에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말한 그 분들이 생각한다. 하긴 산이 있어야 등산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운전기사가 히터를 세게 켜는지 실내가 점점 더워진다. 당시 나는 내의를 입고 있었고 두꺼운 외투까지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는 땀이 배어날 정도였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나만 더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중국인들도 더운지 파카나 외투를 벗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기사에게 히터를 약하게 켜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 같으면 당장 답다며 히터를 약하게 해달라고 주문할 것인데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갈 뿐이다. 대체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에 비하면 이것을 느긋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여유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우리와는 많이 다른 듯 한 그들의 성향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

버스가 공항으로 들어서는데 시계를 보니 12시 5분이다. 4시간쯤 걸렸으니 올 때보다는 한 시간쯤 빠르다. 버스에서 가방을 찾아 내리는데 사모님의 짐이 만만찮다. 카트를 가져와서 짐을 싣고 대합실로 들어가자마자 반사적으로 내게 특이한 국수 맛을 경험하게 한 그 찻집으로 눈이 향한다. 아마 그 맛은 평생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 40분이어서 아직 시간 여유가 많다. 대합실 한쪽에 마련된 휴게소에 카트와 가방을 놔두고 사모님이 계시기로 하고 목사님과 나는 공항 밖에 있는 얼음 조각을 구경하기로 했다. 하얼빈에서는 매년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조각을 설치한 빙등제가 열리는데 그 때는 축제가 이미 끝난 기간이었고 공항 밖에 설치된 얼음 조각은 아주 작은 크기에 지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조금 큰 조각이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날씨도 춥고 걷기도 번거로우니 그냥 가까이 있는 작은 조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